

나는 청춘인가?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It is not a matter of rosy cheeks, red lips and supple knees; It is a matter of the will, a quality of the imagination, a vigor of the emotions; It is the freshness of the deep springs of life. (Samuel Ullman)

청춘은 인생에 있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청춘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의지, 풍부한 상상력, 감성적 활력의 문제이다.

청춘은 인생의 깊은 샘물의 신선함이다. (사무엘 울만)

달이 바뀌어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2014년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있어 남아있는 날 중에서 첫날이 시작된 것이지요.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느끼며 시간이 빠름을 야속하게 여긴 적이 있나요?

유대계 미국인 기업가이면서 시인이었던 사무엘 울만(1840-1924)은 그의 산문 시 ‘청춘(Youth)’에서 인생에서의 ‘청춘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고, 청춘은 곧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신선함’이라고 말합니다.

울만의 시는 미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맥아더(Douglas McArthur) 장군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주둔할 때 도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벽에 써놓고 애송하였으며, 종종 자신의 연설에서도 청춘의 시구를 인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울만은 말합니다. 청춘은 또한 용기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피부를 주름지게 하는 것은 세월이지만,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것은 열정의 포기라고. 걱정과 두려움, 좌절이 마음의 기력을 꺾고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좌절을 이겨내라고….

울만은 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경이로움에 대한 유혹, 미래에 대한 멈추지 않는 어린이들이 가지는 열정과 인생이라는 게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울만은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과 단절되어가고 정신이 냉소적인 눈으로 변하며 염세주의적 얼음으로 덮이게 되면 비록 그의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늙은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고 낙관주의의 파도를 타고 희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비록 그의 나이가 팔십이라 할지라도 젊게 죽을 수 있다고….

달력이 바뀐 첫 날, 영원한 청춘이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